

# check ME up!

2026년 7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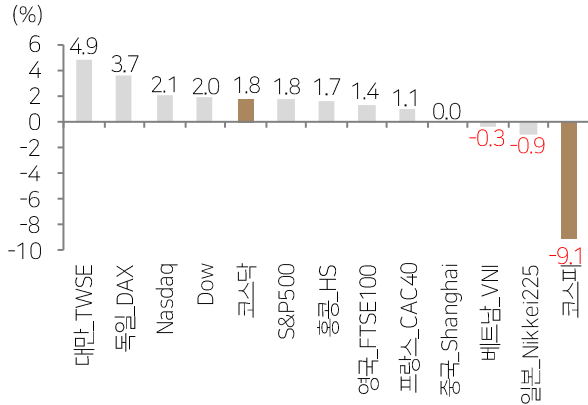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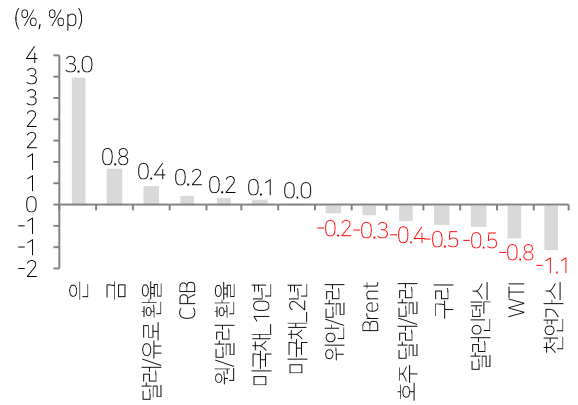
# I. Weekly Review

##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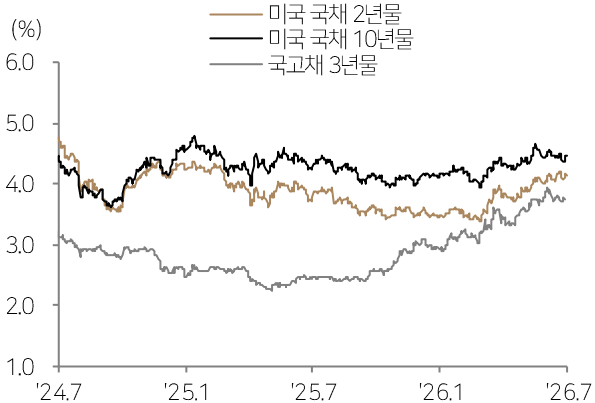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26일 대비 7/2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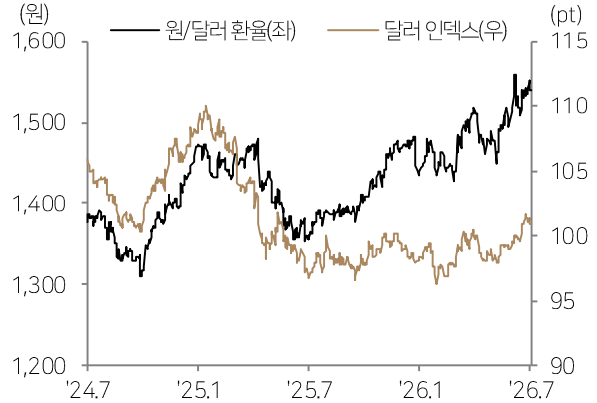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26일 대비 7/2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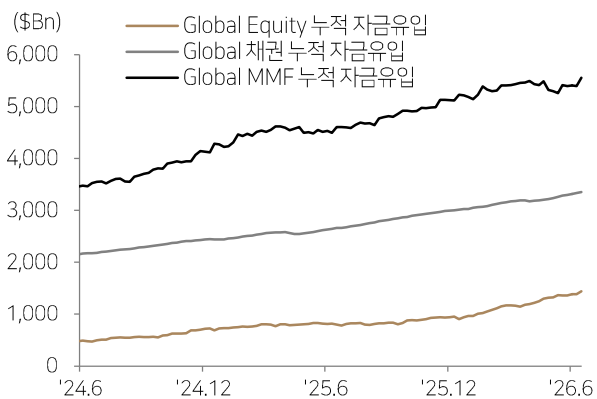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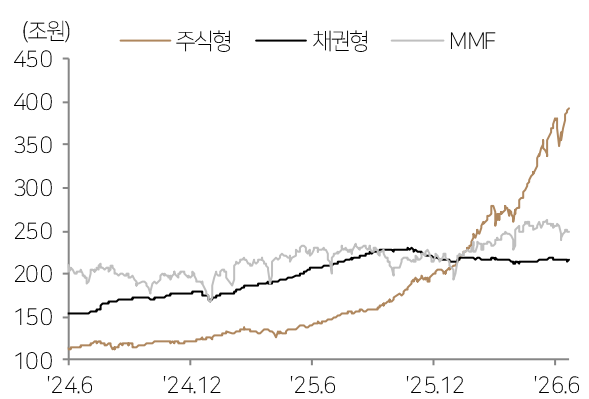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 II. 경제지표 Preview

- 1일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에서는 물가 항목의 상승세 둔화가 확인. 전월 82.1pt에서 73pt로 하락해 예상치 77.7pt도 하회. 유가 하락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양상인데, ISM 서비스업 지수의 물가 항목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중요. 최근 월드컵 이벤트가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할 필요
- 일본과 유럽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도 눈 여겨 볼 부분.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해당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단행. ECB의 경우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닌 유가에 의한 2차 효과 차단 목적의 금리 인상이었으며, 당장은 기초적인 인상이 아니라라는 의사를 표명. ECB는 23일, BOJ는 31일 각각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물가 지표의 상승 폭을 확인할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7-06	유로존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4.9
2026-07-06	유로존	5월 소매판매 전월비	%mom	0.3	-0.4
2026-07-06	미국	6월(최종)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PMI	Index	51.3	51.3
2026-07-06	미국	6월(최종)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Index	-	52.2
2026-07-06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Index	54.0	54.5
2026-07-07	미국	5월 수출/입	%mom	-	2.6/2.0
2026-07-07	미국	5월 무역수지	\$	-78.7b	-55.9b
2026-07-08	한국	5월 경상수지	\$	-	28,292m
2026-07-08	미국	5월(최종) 도매 재고	%mom	0.3	0.3
2026-07-09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3.9
2026-07-09	중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1.2
2026-07-09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mom	1.0	3.2
2026-07-10	일본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8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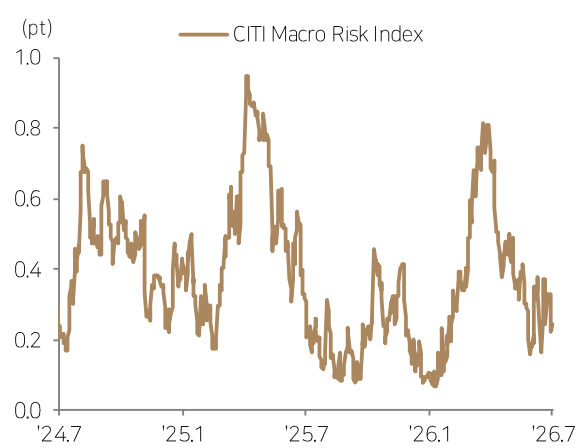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7/6	한국	상	원·달러 24 시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였던 원/달러 거래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서머타임 기준)로 확대. 주말과 1월 1일 제외 모든 공휴일 거래 가능. 외환시장 자유도 확대는 MSCI 선진국 진입의 핵심 개선 과제이기도 함</li> </ul>
7/7	한국	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 26년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컨센서스는 매출 168.6조원, OP 85.0조원, NP 64.7조원으로 형성. 당사 담당자는 총당금 규모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해도 강한 업황을 반영한 고무적 수치가 확인, 실적 확인 후 하반기와 27년 유의미한 추정치 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li> </ul>
7/7~8	터키	상	NATO 정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지원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와 미국 의존도 축소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전망. 미-이란 전쟁 시 지원이 미온적이었다는 불만을 가진 트럼프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 또, 걸프 4개국(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도 초청할 계획</li> </ul>
7/10	미국	상	SK 하이닉스 ADR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통해 최대 45.4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원주 전환비율은 보통주 0.1주에 해당. 대규모 자금조달과 해외 투자자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상장 직후 거래비중 증가 가시화 전까지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여지가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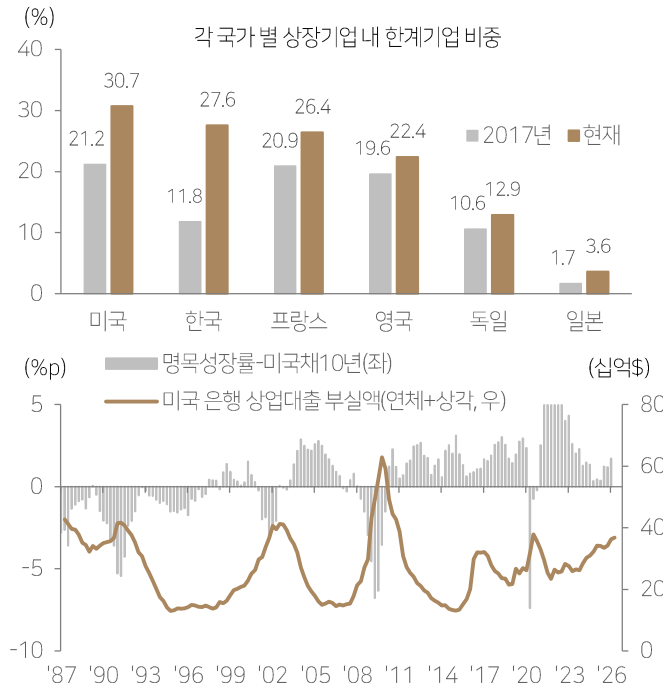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6/26~07/02) 증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PI(-9.1%) 하락, KOSDAQ(+1.8%) 상승. KOSPI는 미디어,교육(+13.7%), 화장품,의류,완구(+12.4%), 건설,건축(+10.4%)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16.6%), 보험(-7.6%), IT하드웨어(-3.6%) 업종 하락. 코스피는 주 초반 정부의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주 후반 메타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반도체 수급 쏠림, 레버리지 ETF 솟감마,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차 낙폭 확대, 7,700선 하회 마감</li> <li>DOW(+2.0%), S&amp;P500(+1.8%), NASDAQ(+2.1%) 상승. 중등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우려가 교차하며 지수 등락을 주도. 주 초반 기술주 고점 부담에 투자심리 위축됐으나, 미·이란 공방 중단 및 국제유가 안정 등을 재료로 매수세 유입. 메타의 유희 컴퓨팅 자원 외부 판매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 압력, 우량주 및 경기순환주로 순환매 유입되는 장세 전개</li> </ul>
차주 (07/06~07/10) 증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 당초 6~7월 변동성을 우려하긴 했지만, 금리 이슈 외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둔화 우려가 더해지며 격한 반응이 형성. 그럼에도 눈에 띄는 모습은 증시에서의 전역적인 자금 이탈이 아닌 업종 순환매 형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미국 증시 역시 다우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 상반된 움직임이 확인</li> <li>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여진의 가능성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도 대응은 지양할 필요. 우려와 달리 Fwd CAPEX 기준으로 향후 1년 내외 기간은 CAPEX가 기존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 향후 투자 정점은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한국 반도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이며, 전일 단기 급락으로 한국 증시 PER은 6.9배 수준까지 하락. 당사는 하반기 전망에서 6.8배 수준인 7,590pt를 하반기 하단으로 상정. 수급 변동 등에 따른 일시 이탈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는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이익 전망치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 시, 이하 영역에서는 저가 메리트 향유에 주력할 필요</li> </ul>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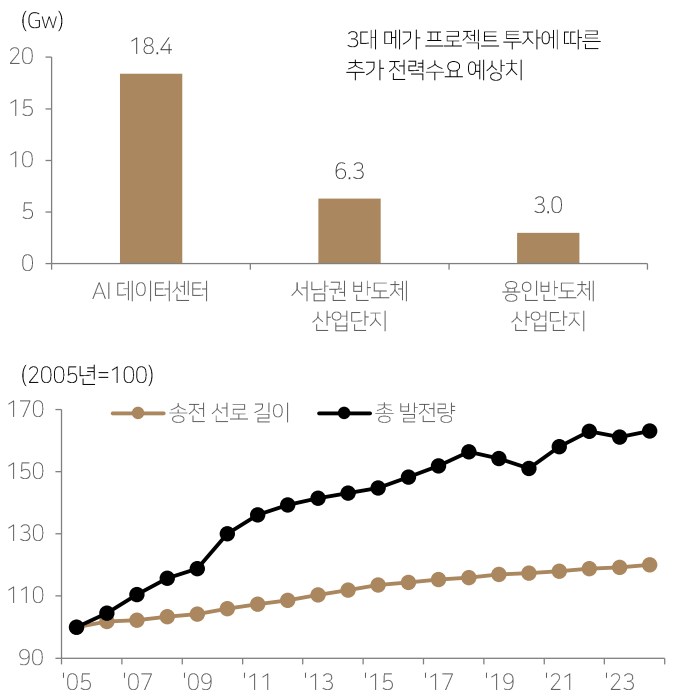
글로벌 전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장 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양상



Source: 한경협, Bloomberg, 다음투자증권

- 최근 주요국 한계기업 비중이 전역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경협이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국 상장사 가운데 한계 기업 비중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미국이 30.7%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7.6%, 프랑스가 26.4% 등으로 뒤따르고 있음. (참고로 여기서 한계기업은 EBIT 기준 이자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 한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 2,500여개 기업 대상)
- 시장별로는 코스피 16.7%, 코스닥 32.6%로 집계되고 있어 시장 별 쏠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입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K자 형 하단 기업들의 부담이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 이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역적인 문제
- 부채는 결국 성장이 부채의 증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국면에서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연준이 금리 통제에 실패하거나, AI CAPEX의 둔화가 총량 관점에서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자극하게 될 경우 크레딧 이슈들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질 수 있음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 보다 큰 문제는 발전보다 송전 쪽에 있을 듯



Source: 산업통상부, 언론, EPSIS, 다음투자증권

- 주중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3대 메가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기존 투자를 합쳐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정부는 신규 투자 중심으로 1,500조원 규모를 발표. 여기엔 기존 평택, 용인 반도체 투자와 호남/충청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등이 포함
-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가 제기. 전력이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해당 분야의 특성 상 필수 사항. 당초 11차 전기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10.3GW의 추가 전력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번 계획을 반영하면 +27.7GW의 전력 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발전용량과 송전이 미스매칭이 나고 있다는 점. 24년 말 기준 한국 총 발전량은 594.3TWh로 20년간 +63% 증가. 하지만 송전선 총연장은 1.66만 Km로 +20% 증가에 그침. 특히 765Kv 이상 초고압 송전 설비는 최근 10년 간 정체

[www.daolfn.com](http://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업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